

# 북

## 우울증, 유머로 승화 '위인' 반열에

### 링컨의 우울증

조슈아 셸크 지음·이종인 옮김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천재는 노이로제의 산물이다'고 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1809~1865), 그를 국난 극복의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게 '우울증'이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링컨 탄생 200주년을 맞아 링컨의 우울증에 대해 조명한 역사 심리서가 나왔다.

미국 뉴스클 대학교수인 셸크는 '링컨의 우울증'을 통해 우울증과 개인적 비극을 인내하며 위대한 대통령으로 거듭난 링컨의 삶을 조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어머니, 동생, 누나가 모두 병 등에 걸려 죽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던 링컨은 20대 초반 우울증이 발병, 40대까지 시달려야만 했다. 그러나 목표의식을 잊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던 그는 강인한 성격 탓에 우울증을 극복해 '위인'의 반열에 올랐다고 저자는 말한다.

책은 3부로 구성돼 있다. 링컨의 우울증과 관련한 3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첫째, 그것은 임상적 우울증인가? 책의 1부에서는 링컨의 우울증이 발병한 과정을 추적하고 아울러 그것이 현대 정신의학의 진단 카테고리와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그는 어떤 치료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링컨이 자신의 우울증에 어떻게 대응했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썼는지 알아본다.

셋째, 그의 우울증은 어떤 방식으로 그의 공적 생활에 기여했는가? 3부에서는 링컨의 우울증이 그의

원숙한 성품, 사상, 행동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책은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10가지 주제의 이야기로 풀어졌다.

저자는 무드 스윙(우울함과 폐활함이 번갈아 찾이드는 증세)과 두 번의 우울증 발작 등 링컨의 증상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20, 30대 중증 우울증과 그 후의 고질적인 우울증으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링컨이 쓴 것으로 알려진 자살 관련 자작시도 담고 있다.

### 20여년 시달린 우울증

#### 강인한 성격으로 이겨낸

#### 링컨의 위대한 삶 조명

"달콤한 단도여!/네 칼집으로부터 나와서/번져 거리며 네 힘을 말하라/내 호흡의 기관들을 찢어 놓아라/그리고 내 피로 소나비를 내려라!/나는 찌른다!/그것은 내 심장에서 진동한다/나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심장!/나는 칼을 뽑아, 피 묻은 칼에 키스한다/나의 마지막, 유일한 친구여!"(86~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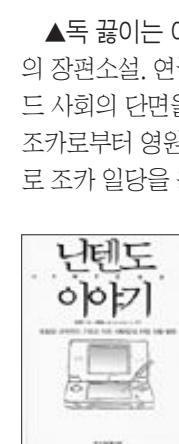
엄청난 고통을 위대한 힘으로 승화시킨 링컨의 우울증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기 같다.

책은 또 과거의 이야기면서도 우리시대를 위한 이야기기도 하다. 해마다 1억명 이상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우울증은 현대사회를 좀 먹는 제1의 질병이다. 한해 세계적으로 약 100만명 이상이 자살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썼는지 알아본다.

셋째, 그의 우울증은 어떤 방식으로 그의 공적 생활에 기여했는가? 3부에서는 링컨의 우울증이 그의



▲조선정치의 꽃 정쟁=극작가 신봉승씨가 선조에서 순조까지 10대 230년간 한국의 소용돌이가 이어진 조선 정치의 내막을 팩션형식으로 풀어냈다.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왕들, 그에 맞서 의리·명분·이념에 목숨을 걸었던 신하들의 대립을 '정쟁(政爭)'이라는 시각으로 재해석했다. <청아출판사·2만5천원>



▲독 끓이는 여자=뮤지컬 '기발한 자살 여행'의 원저자 파실린나의 장편소설. 연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70대 노인을 주인공으로 판란드 사회의 단면을 풍자하고 있다. 자신의 연금을 강탈하려는 불한당 조카로부터 영원히 도피하려고 자살용 독을 끓이지만, 결국 그 독으로 조카 일당을 징징하게 된다. <솔·9천500원>



▲닌텐도 이야기=닌텐도DS, 닌텐도 위(Wii)로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닌텐도 그룹. 다위 니즈연구소 김영한 소장이 회투공장에서 시작해 120년 동안 '플랫폼, 오락'이라는 하나의 '업(業)'에 충실히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온 닌텐도의 성공 비결을 실증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1만3천원>



▲조선무사=무예사와 전쟁사를 연구하며 '무예24기 연구소'를 운영하는 최형국씨가 조선시대 전쟁을 직접 수행한 병사와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백성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어썼다. 병사들이 입었던 갑옷, 전투에 쓰였던 다양한 무기들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당시 병사들과 백성의 모습을 재현했다. <인물과사상사·1만2천원>



▲바람이 되어도 좋아=서른 살, 김진아씨는 생애 가장 혹독한 여행을 떠난다.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그렇게 3년 동안 세상 끝 남극에서 히말라야까지 걷고 떠나기를 반복했다. 순례자처럼 걸으며 길 위에서 모든 것들에 자신을 들어 놓는다. 여행 중간 중간 짤막한 글들과 사진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랜덤하우스·1만3천500원>



▲김희선의 해피프로젝트=텔런트 김희선이 결혼 6개월 만에 첫 아이를 갖고 출산에 이르기까지 280일의 기록을 유쾌하게 풀어냈다. 김희선처럼 예쁜 아기 낳는 비법과 예쁜 엄마가 되는 법, 에코맘 프로젝트, 베이비 쉬파파티하기, 여왕저령 대접받는 산후 조리 기술 등을 펼쳐 사진을 걸들여 소개하고 있다. <엘컴퍼니·1만8천500원>

### '석학인문강좌'

### 학술재단 강의 둑어



학술진흥재단이 인문학 부활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의 강의 내용을 담은 '석학인문강좌' 책으로 나왔다.

1권 임형택(전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원장의 '문명의 식과 실학' 강의를 필두로 '상생적 자유주의'(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프라이버시의 철학'(이진우 계명대 철학과 교수) 등 3권이 먼저 나왔다.

출판사는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1, 2기에 강연자로 나선 석학 20명의 원고를 모두 모아 내년 상반기까지 20권의 '석학인문강좌'를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돌베개·각권 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ju.co.kr

### 유럽 도서관에서 길을 묻다

#### 학교도서관담당교사 모임 지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교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이 지난 겨울 함께 여행을 떠났다. 12박 14일의 유럽 여행.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부자들은 가난하든 똑같이 보아줄 수 있는 곳'

이자 '아이들에게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자원해 학교 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유럽의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그리고 서점들을 방문했다.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 서울모임 소속 교사들이 여행 기록을 둑어 '유럽 도서관에서 길을 묻다'를 평냈다.

## 오래된 미래를 찾아 떠난 희망 여행

책을 좋아하는 일반인들의 도서관 방문기와는 달리 이 책이 더욱 반기운 건, 분명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 여행에서 필자들이 보고 느낀 것들은 바로 '우리 아이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거라는 확신 때문이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은 도서관과 관련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열악하기 만한 우리 학교 도서관의 실태를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번 도서관 기행은 주눅들고 부려움 가득한 여행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 꿈을 꾸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저자들은 파리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인 '즐거운 시간 도서관', 공공도서관 여행을 떠나기 전 함께 읽고 공부한 '고대 도서관의 역사', '읽는다는 것의 역사',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등 50여권의 책도 소개했다.

마리 학교 도서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도서관과 시립도서관,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게 해준 이탈리아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 도서관, 영국의 국립도서관, 미테랑 도서관 등을 방문했다.

또 친환경적이이고 이용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프랑크푸르트 후겐두벨 서점 등 길거리에서 만난 서점들을 소개했다.

여행에 동참한 두명의 아이들이 쓴 여행기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도서관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책 말미에는 유럽도서관 여행을 떠나기 전 함께 읽고 공부한 '고대 도서관의 역사', '읽는다는 것의 역사',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등 50여권의 책도 소개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ju.co.kr>

/김미은기자 mekim@kwanju.co.kr

###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038-521 10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 빌딩(임대용, 투자용)

- 상무구 토지 120평 건물 554평 보증금 2억/월세 2000만원 대/322억
- 토지 200평 건물 725평 보증금 37억/월세 1700만원 대/322억
- 토지 600평 건물 1300평 보증금 37억/월세 3000만원 대/12억 매가 78억
- 토지 300평 건물 970평 매매가 68억
- 험 52억으로 사무·옔스텔·문

#### 토지(상무구 중심상인지역)

- (회사시무 및 병원 화장실부지 등)
- 2,800㎡ 1650평 - 매가 1,300억
- 727㎡ 220평 - 평가 1,200억
- 450㎡ 136평 - 평가 850만원
- 833㎡ 1259평 - 평가 1,250억
- 611㎡ 185평 - 평가 680만원

#### 기타용도

- (농장) 그린밸트 73,000㎡ 2만5천평
- 평지 1층 100평 1,100㎡
- 2,800㎡ 1650평 - 매가 1,300억
- 727㎡ 220평 - 평가 1,200억
- 450㎡ 136평 - 평가 850만원
- 833㎡ 1259평 - 평가 1,250억
- 611㎡ 185평 - 평가 680만원

#### 분양가 8억 아파트 1300세대 상가가 매가 2억 5천

- 35m로 지 1층 상가 100p 땅 지분 93p
- 한의원 내과 적합

#### 공시지가 13억 매가 7억 5천

- 현재 한의원 경영 중 대 130p 건 230p 상업지역
- 대 100p 건 300p 상업지역
- 상가지가 13억 매가 7억 5천

#### 분양가 30m로 100p

- 대 100p 건 450p
- 대 100p 건 300p
- 대 100p 건 230p

#### 32억 월평 금매

- 대 200p 건 450p
- 대 80억 원 월 2350만원 을 13억포함

#### 강경 가 46억 매가 24억

- 대 100p 건 450p
- 대 100p 건 300p

#### 빌딩금 150p 1000p 지하1층, 지상5층

- 대 100p 건 450p
- 대 100p 건 300p

#### 전체공실

- 대 100p 건 450p
- 대 100p 건 300p

#### 화순구 유소금매

- 대 600p 세차시설 카센터 주유기 12대

- 대 12억 원 6억포함

#### 화순, 절터, 요양원, 별장부지

- 9500p 현재 황토방 칭고관리실

- 주택조경수 식재 4억5천

#### 장성 일 아사슴장, 별장

- 10000p 4억7천

#### 공시지가 이하 금 매물 접수 환영

- 대 100p 건 450p

#### 물건 접수합니다.

-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 경리하실 물건

- 팔아드려겠습니다.

-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